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3부장 우기열
전화 031-749-0500 / 팩스 031-739-4715

보도자료
2020. 4. 7.(화)

제 목

성남 닭강정 허위주문 관련 감금·공갈 등 사건 수사결과 [대출사기 일당 5명 구속기소]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※ 위 양식에 따라 공보자료의 앞부분에 공개의 요건과 범위 기재(제15조 제4항)

※ 해당 부분에 표기, 해당사항 없는 부분(□)은 내용 삭제

□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는 2020. 3. 17.~4. 7. '성남 닭강정 허위 주문' 관련, 공동감금·공갈 등 범행을 저지른 대출사기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□ 피고인 및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A○○(남, 20세, 무직, 주범) :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사기, 사기미수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, 업무방해 등
- B○○, C○○(각 남, 20세, 무직) :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사기, 사기미수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
- D○○(남, 20세, 무직) : 위조사문서행사, 사기미수
- E○○(남, 20세, 무직, 문서위조책), 사문서위조, 사기방조 등

□ 수사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'19. 12. 감금 피해자들의 112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, 금년 2~3월 경찰(성남수정경찰서)이 대출사기 일당 5명을 순차적으로 구속하여 송치하였음
- 검찰은 구속송치된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보완수사하여 3. 17.부터 금일(4. 6.)까지 피의자 5명을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모두 구속기소하였음

□ 주요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작업대출 관련 범행

- 피의자 A~D는, 페이스북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㉠ 등의 명의로 '작업대출'을 진행하면서, E를 통해 모 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, 위조한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[사문서위조 및 동행사, 사기, 사기미수]

2. 피해자 ㉠(남, 19세)에 대한 범행

- 피의자 A는 '19. 12. 20~24. 피해자를 성남 소재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여 감금하고,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갈취 [감금, 공갈]

3. 닭강정 허위주문 범행

- 피의자 A는 '19. 12. 24. 감금하고 있던 ㉠가 달아나자 화가 나 ㉠의 집으로 33만원 상당의 닭강정 등을 허위로 주문 [업무방해]
- ※ 언론보도된 '닭강정 허위 주문' 사건으로서,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㉠가 신용카드를 수령하러 간다면서 도망가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임

4. 피해자 ㉡(남, 19세, 지적장애 5급)에 대한 범행

- ① 피의자 A와 B는, '20. 1. 2~20.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㉡를 수원, 서울 소재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여 17일 동안 감금하고, 휴대폰과 지갑 등을 갈취하고,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, ② 피의자 A와 C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,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처분 [폭처범위반(공동감금), 폭처범위반(공동공갈), 공갈, 상해]

5. 피해자 ㉢(남, 23세)에 대한 범행

- 피의자 A와 C는, '19. 11. 15~12. 1.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㉢를 성남 소재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며 폭행하여 17일 동안 감금하고,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처분하고, 피해자 명의로 1,000만원 대출받아 갈취 [폭처범위반(공동감금), 폭처범위반(공동공갈)]

6. 피해자 ㉣(여, 22세)에 대한 범행

- 피의자 A와 B는, '20. 1. 15~18. 피해자 ㉣ 명의로 '작업대출' 진행하여 대출금 700만원 편취하고,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 [사기, 컴퓨터등사용사기]

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 작업대출 진행하고, 그 과정에서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감금, 공갈,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음

- 또한, 그 과정에서 도망간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그의 집에 33만원에 이르는 닭강정을 허위주문하여 배달되게 하였던 것임

※ 피의자들은 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순차적으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, 페이스북에 ‘신사’ 또는 ‘사신’ 이라는 명칭으로 『대학생 대출, 무직자 대출, 99년생 대출, 00년생 대출』 이라고 게시하거나, 『안녕하세요 사신 대출팀입니다. 3인조로 움직이고 있구요, 항상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. ㄱ ㅌ(휴대통 개통) 및 ㄷㅈ(대출) 문의주세요, 교대근무로 하고 있고 24시 문의 항시 대기중입니다』 이라는 글을 게시

□ 무직인 피해자들로서는 허위의 재직·경력증명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출받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,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서류 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사정 등을 약점 삼아 감금, 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것임

※ 피의자들은 ‘닭강정 허위주문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음

□ 검찰은 죄질과 위법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, 여죄도 규명하여 엄벌할 예정 ☑